

美國의 大學 敎養教育課程 개발과 구성

—세계 主要國의 大學 교양교육 ④—

金 容 宇

(KEDI 教育行政研究部長)

세계 主要國의 大學 교양교육

1. 韓國의 大學 敎養教育
2. 日本의 大學 敎養教育 내용과 특성
3. 中國 大學의 교양교육과 思想政治教育
4. 美國의 大學 敎養教育課程 개발과 구성
5. 영국
6. 독일

1. 머리말

교육과정이란 주어진 시대 속에서 어떠한 지식과 경험들이 교육받은 자를 결정하는 데 가장 적절한가를 나타내는 선언인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미국 대학의 교육과정도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1636년 하버드대학 설립 이래로 중세 유럽식의 필수 교양과목 교육과정을 필두로 하여 1928년 예일 보고서(Yale Report)로 시작된 미국 자체의 고전 교육과정, 1970년 코넬대학을 시작으로 한

종합대학교와 1970년대의 존스 홉킨스(John's Hopkins)대학으로 나타나는 연구중심의 종합대학교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중핵과정(core curriculum), 학문간 교육(interdisciplinary education), 능력중심 학습(competency based education) 등 교육과정 변천상의 커다란 계기들을 들 수 있다.¹⁾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미국 대학 교육과정의 변천을 본다면 필수과목과 자유선택(prescription vs. free choice), 선민주의와 호혜평등주의(eliticism vs. egalitarianism), 집단지도와 개인지도(group instruction vs. individualized instruction), 학문중심과 직업중심교육 등 서로 같거나 대비관계에 있는 개념들이 시대 상황에 따라 번갈아 우위를 점하며 변화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교양교육과 전공교육 간의 갈등도 위의 여러 갈등적 개념들과 함께 미국 대학 교육과정의 변천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중요한 준거의 하나이다. 우선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 대학

1) Fredenick Rudolph, *Curriculum—A History of the American Undergraduate Courses of Study Since 1636*(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77) 중 Clark Kerr의 서문.

교양교육과정의 변천을 살펴보고, 이어서 교양교육과정의 개념 및 구성을 알아보기로 한다.

2. 敎養教育課程의 變遷²⁾

1636년 하버드대학 설립을 시작으로 한 영국 식민지 시대의 초기 미국 대학들은 성직자, 정치가, 실업가, 변호사, 교사 등 사회의 정신적 지도자들이 필수로 지녀야 하는 기독교적 도덕과 교양의 배양에 그 목적을 두었으며 교육과정은 모두 필수 교양과목으로만 구성되었다.

중세 유럽의 7대 교양과목(문법, 논리학, 수사학, 수학, 기하, 천문학, 음악)에 기초를 둔 라틴어, 희랍어, 히브리어 등의 언어와 논리학, 문리학, 수학, 자연철학(물리학), 도덕철학(윤리학) 등이 그 당시 교육과정이었다. 1779년 버지니아의 윌리엄 & 메리(William and Mary) 대학에서 선택과목 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전과목 필수적인 요소는 점차 사라졌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 라틴어나 그리스어 같은 죽은 언어교육이 불어나 독일, 스페인어 등으로 대체되기도 하였으나, 그 목적에 있어 특정 학문의 연마나 직업기능의 습득보다는 가치교육과 품성교육에 치중한다는 교양교육적 성격은 19세기까지 지속되었다.

19세기 말부터 이러한 교양교육 중심의 미국 대학체제는 큰 변혁의 물줄기들을 맞이하게 된다. 1862년에는 州마다 농업이나 기계공업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에 국유지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국유지교부법(Morrill Act)이 미 연방 의회에서 통과되어 일반교양교육에 치중하던 기존의 대학들이 직업 기술교육에 치중하게 되었으며, 많은 국유지 교부대학 및 농업기술대학(Land Grant Colleges, A & M)들이 이 법안의 통과를 계기로 생겨났다.

1869년 하버드의 엘리엇(Charles Eliot) 총장은 고전적 교양 필수과목 제도를 폐지하고 과목

자유선택 제도를 도입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필요에 맞는 과목들을 선택하여 스스로 하나의 전공영역을 쌓을 수 있도록 하였다. 과목 자유선택 제도는 이전에도 윌리엄 & 메리나 스키타디 등의 대학에서 시도되었지만, 미국 대학의 교육과정을 주도하는 하버드에서 이러한 개혁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여파는 컸다.

19세기말 교양교육을 위협한 또다른 현상은 독일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학자들이 설립한 존스 홉킨스, 미시간, 시카고 등 종합대학교(university)의 등장이다. 오랫동안 가치 및 성품 교육을 하여오던 미국의 대학들도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연구 중심의 기관으로 변화해야 했으며, 이는 자연스레 학문분야의 전문화를 가져와 전공 및 부전공 제도로 발전하였다. 이는 미국의 대학들이 영국식 대학유형에서 독일식 대학유형으로 전환함을 의미하며 전공교육의 대두와 교양교육의 상대적 위축을 의미했다.

오랜 교양과목 위주의 교육과정에 불어닥친 선택적 전공제도의 유행은 당연히 변증법적으로 작용하여 敎養과 專攻의 調和를 추구하는 움직임을 낳았다. 1908년 하버드의 로웰(A. Lowell) 총장이 주장한 집중과목과 분산과목(concentration and distribution) 제도는 1·2학년에서는 계열별 교양과목으로 여러 분야의 기초를 쌓고 3·4학년중에 자신의 전공에 주력하도록 하였다. 콜럼비아대학에서는 1919년 1학년 모두에게 필수적인 핵심 교육과정(core curriculum)을, 시카고대학에서는 1930년대에 공통핵심 교육과정(common core curriculum)을 운영하였다.

1902년의 '교양교육재단'(General Education Board), 1906년의 '카네기 교수활동 진흥재단'(Carnegie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Teaching), 1915년의 '미국대학연합'(Association of American College)도 전공교육의

2) 이 부분은 John, S. Brubacher and Willis Rudy, *Higher Education on Transition—A History of American Colleges and Universities, 1636~1976* (New York: Harper and Row, Publishers, 1976)를 중심으로 기술함. 장상호, 김용덕, 진교훈, 최성욱, 『대학교육과정의 국제비교연구』, 연구보고 88-20-51(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0)과 이인호, "미국의 인문교육: 문제 제기과 내용의 양식(상·하)", 『교육진흥』, 1992년 봄호, 여름호도 참조하였음.

치중으로 인해 위기에 빠진 교양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설립된 모임들이었다.

미네소타대학은 1932년 일반교양대학(general college)을 설립하여 1~2학년들의 자기발견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1943년 하버드의 코난트(J. Conant)가 임명한 '자유사회의 교양교육의 목적 규명을 위한 위원회'가 작성, 1945년에 발표한 하버드 보고서(Harvard Report)도 지나친 전공교육과정의 강조로 전통, 문화유산 그리고 공동의 믿음체계에서 벗어나고 있는 미국 대학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취해졌던 대표적 노력이다.

5개 교양과목(작문, 인문학, 사회과학, 물리과학, 생물과학)에 대해 7회의 종합시험을 치를 정도로 교양교육을 강조했던 시카고대학의 허친스(R. Hutchins) 총장의 영향을 받은 두 명의 교수(S. Barr, S. Buchanan)들은 아나폴리스(Annapolis, Maryland)에 있는 세인트 존스대학에서 고금을 털어 가장 위대한 120권의 고전들에 대한 과목으로만 이루어진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2차대전 이후 군인권리개정법안(G.I. Bill of Rights)이 통과되면서 약 225만 명의 제대 군인들이 미국의 대학으로 몰려들어 대학의 대중화·개방화를 추진하였으며, 월남전 이후 학생들의 발언권 강화에 따른 특수과목 설치나 전공과목의 증설로 미국의 교양교육은 다시 한번 도전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까지의 직업의 다양화, 전문대학원 준비위주의 전공교육, 기술의 발달 및 다양화, 전공의 세분화 등과 어울려 대학생들의 전반적 학력저하 현상에도 불구하고 점차 교양교육의 실제적 비중을 낮추어 오고 있는데, 이는 현재 미국 대학교육의 전반적 실상이기도 하다.

그러면 다음으로 미국 대학교육에 있어 교양 교육과정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떠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또 미국 대학의 교양교육이 추구하는 미래의 모습은 어떠한지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3. 教養教育課程의 概念 및 目的

영어로 교양교육을 나타내는 용어로는 liberal (arts) education과 general education이 있다. 이 두 용어들은 흔히 동의어로 사용되며 구분을 하는 경우도 학자마다 그 구분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 글의 목적을 위해 굳이 구별을 한다면 그 목적면에서 'liberal education'은 미국의 종합대학교(university)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인문교양 대학(liberal arts colleges)들이 지향하는 사회지도자 혹은 완전한 인격을 지닌 인간으로서의 가치나 품성교육을 의미한다.

여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general education'에는 종합대학교가 이루어지고 학문 및 학과·전공의 세분화가 이루어진 이후 전공과목에 관계없이 모든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어떤 것이며, 학문 세분화로 나뉘어진 과목들을 어떻게 의미있는 전체로서 상호 관련짓는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02년 존 듀이가 말했듯이 '학생들이 바깥 세상의 예비지식(orientation)을 획득할 수 있는 조사(survey) 과목'이나 1차대전 후 콜럼비아 대학에서 제공되었던 역사, 철학, 경제학, 정치학을 '전쟁의 쟁점'(war issues)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묶은 간학문적(interdisciplinary) 접근 등이 general education의 대표적 예이다. 이 두 가지 개념은 확대해석의 정도에 따라 상호 포괄적일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 '교양교육'이라는 용어는 liberal education과 general education 두 가지 개념을 망라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교수활동 진흥을 위한 카네기 재단(The Carnegie Foundation of Advancement of Teaching)의 '대학교육과정의 사명'(Missions of the College Curriculum)에는 교양교육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교양교육은 ① 고도의 학문과 평생에 걸친 배움에 필요한 기술을 함양하고, ② 인문과학, 과학, 사회과학 및 예술 등의 사상과 그에 대한 해석의 큰 주류를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학습시간을 배분하며,

3) The Carnegie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Teaching, *Missions of the College Curriculum—A Contemporary Review with Suggestions*(San Francisco: Jossey-Bass Inc, Publishers, 1977).

③ 보다 범위가 넓고 복잡한 주제를 넓게 이해하고 사고할 수 있도록 학습경험을 통합시킨다.

카네기 재단은 현대사회에서의 교양교육의 중요성으로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더 많은 학습의 기술(learning skills)이 필요하며 새로운 주제 및 생각들에 가까이 가기 위하여 도서관을 비롯한 여러 정보시스템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번영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정보들은 양적인 상태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람들은 통계학과 같은 보다 고도화된 분석의 도구들에 익숙하여야 한다.

둘째, 우리는 모두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대비해야 하며, 특히 생업, 여러 기술의 습득, 새로운 인간관계에의 적응,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의 추구에 있어 항상 새로운 대안책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

셋째, 사람들은 직·간접적으로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평화의 유지를 위해 국가나 이념간 이해관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의 유지, 사용가능한 자원의 제한성, 축적된 개인의 행동들이 우리가 이루어 온 문명의 질과 우리의 안전과 자유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

넷째, 우리는 우리들의 총체적 삶의 질에 있어 새로운 경지를 맞이하고 있다. 평균 수명도 길어졌으며, 우리의 앞세대에 비하여 겪을 수 있는 경험의 양도 늘어났다. 따라서 우리는 삶의 철학을 발전시키고, 생활의 양식을 선택하고 건설적이며 만족스럽게 여유의 시간을 지내며,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나 국가, 나아가 우리에게 생소한 세계 여러 지역의 문화적 전통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의 함양이 필요하다.

다섯째, 우리는 또한 전체 우주의 거대한 구조와 세계 전체의 삶에 놓이는 위치를 깨닫고 그 속에 하나의 시민으로서 참여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역사 속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교육의 일

부로서, 삶의 자기완성을 계획하고 주도하며,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주위 사람들을 이해하고 함께 일하며, 효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를 획득하고 분석할 수 있는 지식을 필요로 한다.

4. 敎養教育課程의 構成⁴⁾

앞에서 제시한 교양교육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국 대학의 교양교육과정은 크게 지식획득 기술의 함양, 지식에 대한 경험 확대, 그리고 학습된 경험 및 지식의 통합 등 세 가지의 지식에 대한 접근형태적인 분류를 해볼 수 있다.

1) 고등의 학습기술

고등의 학습기술(advanced learning skills)은 교양교육과정 중 지식획득의 기술에 속하는 도구과목으로서 일반적으로 영어작문, 수학, 외국어 및 체육을 들 수 있다. 통계학이나 컴퓨터입문 같이 여타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의 정보처리를 위해 필요한 도구과목도 고등의 학습기술과목에 속한다.

고등의 학습기술 과목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은 상기의 과목들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경우를 제외하고, 과연 얼마만큼의 학습기술이 대학에서 가르쳐져야 하며, 또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에게 얼마만큼의 학습기술을 미리 준비시켜 대학에 보내야 하는가이다. 미국은 고등학교도 선택 교과제이고 또 대학의 수준이 다양하여 일정한 정도를 정할 수는 없지만 고단위 영작, 수학, 외국어 등은 고등학교에서 대학 학점으로 과목들을 수강하고 대학에서 학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그 연계를 꾀하고 있다.

2) 지식경험의 배분

한국어의 '배분'이라는 번역이 그 뜻을 정확히 전달하고 있지는 않지만 배분(distribution) 과목은 '폭을 넓힘'(breadth)이라는 의미로 인문과학·사회과학·자연과학 또는 예술의 영역

4) 이 부분은 카네기 재단의 앞의 책과 Ernest Boyer의 카네기 재단 연구인 *College—The Undergraduate Experience in American*(New York: Harper and Row Publishers, 1984)를 주로 하여 기술함.

등 주된 지식 영역의 내용·전통·연구방법들을 모든 학생들에게 폭 넓게 교양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제시한다는 것이다. 배분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다른 전공의 교수 및 학생들과 의견을 나누는 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대개의 배분과목은 전공과목에서 개설되는 전공학생들을 위한 '개론'이나 '입문' 과목들을 여타 전공의 학생들이 함께 선택하는 식으로 진행되나 그 전공영역에 내용, 역사 및 방법을 폭 넓게 전하기 힘든 경우도 발생한다. 대학에 따라 전공학과들은 '심리학을 위한 통계학', '과학자들을 위한 독일어' 같이 자신의 전공을 심화하며 배분과목의 습득도 함께 하는 '이중효율'(double-duty) 과목을 운영하기도 한다. 앞에서 제시된 타전공 조사과목(survey courses)으로 각 전공학과가 타전공 학생들을 위한 개론과목을 설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이는 또 역으로 그 전공영역을 깊이있게 이해하지 못하는 수박겉핥기 식의 운영이 비판의 대상이 된다. 한 학문영역 내의 여러 학과가 모여 그 영역의 개론과목을 함께 개발하는 것도 학과간·교수간의 협동을 전제로 한다. 각 전공영역 외의 아무 과목이나 학생이 선택하면 이를 교양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는 배분과목의 목적 중 하나인 학문에 대한 '포괄적 이해'라는 측면과 부합하지 않는다.

배분과목의 몇 가지 특이한 예를 들어 본다면, 우선 1969년 브라운대학에서는 분야별 주제를 전공학과에 구애없이 공부하는 '사고의 유형' 과목들을 개발했다. 이 사고의 유형 과목들로는 '생물학과 인간의 본성', '사회의 비합리성 : 프로이트, 베버, 짐멜의 감정과 카리스마에 대한 입장', '항공학과 과학적 연구에서의 의사결정과정' 등 36개 과목이 개설되었는데 학생들은 교양과목들로 이들 중 5개 과목을 필히 수강하도록 하였다.

미시간대학에서는 전체 학문영역을 분석적 접근(수학, 문장론, 철학), 경험적 접근(사회 및 자연과학), 도덕적 접근(철학, 종교학, 고전), 그리고 심미적 접근(미술, 음악, 문학 및 영국의 역사) 등 4가지 접근에서 '배분'하는 '지식에 대한 접근'(approaches to knowledge)이라

는 교양교육과정을 운영한다.

3) 통합적 학습경험

교양교육의 세 번째 구성요소인 통합교과는 배분과목이나 선택과목에서는 해내기 어려웠던 학문간 응집력을 이루어 전체 문명과 구성원으로서의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이해하되, 특별한 주제보다는 넓고 일반적인 주제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의 함양을 주목표로 한다. 통합방식과 배분방식의 차이는 뒤의 <그림 1>과 같다.

통합교과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① 특별 필수과목(special requirements)

미국의 많은 대학들이 '서구문명', '미국문학' 등 미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과목을 필수교양으로 요구하는데, 이는 간학문적 접근이라는 면에서 통합교과 교양과목으로 볼 수 있다.

② 대주제 중심 통합과목(central subjects)

인문, 사회, 자연, 과학 및 예술 등 학문분야를 '역사'나 '문명', '인간' 및 '환경' 등 하나의 주제로 묶어 제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동아시아의 문명'이라는 주제는 동아시아의 역사, 문학, 예술 및 철학을 망라할 수 있다.

③ 핵심과목 및 프로그램(core courses and progra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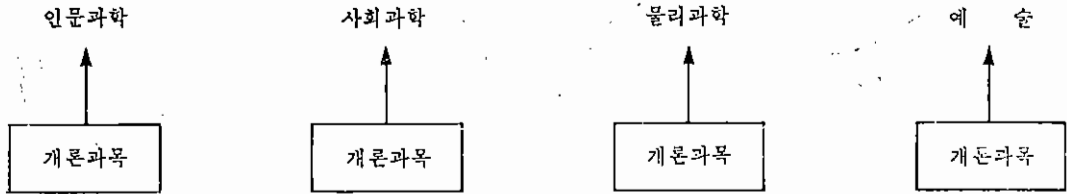
인디애나 주의 세인트 조셉대학(St. Joseph's College)에서는 교양교육과정을 4년, 8학기에 걸친 핵심과목 프로그램으로 대처하였다. 1학년 때에는 '현 시대의 상황'과 '히브리·그리스·로마의 문화 유산'을 배우며, 2학년에는 '중세'와 '현대의 세계'를, 3학년에는 '우주 속의 인간'과 '미서구 지역의 연구'를, 4학년에는 '기독교적 인간주의'를 배워 인간과 환경, 문명과 문화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여러 전공학과의 교수들이 모여 강의 내용과 과제를 선정하기 때문에 다른 전공 교수들간의 이해와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키우는 효과도 있다.

④ 조사(survey) 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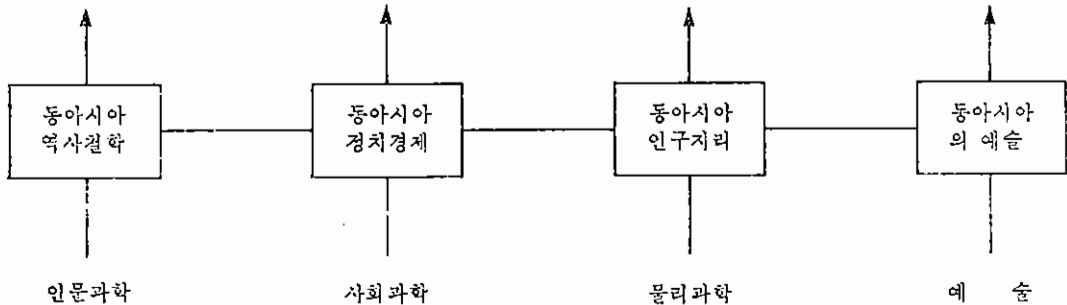
여러 전공교과의 폭 넓은 주제들을 하나의 교양과목에서 살펴보고 통합을 꾀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차대전 후 개설되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콜럼비아대학의 '근대의 문명' 과목이 좋은 예이다.

〈그림 1〉 교양교육과정의 배분방식과 통합방식

· 배분방식



· 통합방식



⑤ **간학문적 프로그램 (interdisciplinary programs)**

그린베이에 있는 위스컨신대학(University of Wisconsin at Green Bay)에서는 28개의 주제별 통합과목을 운영한다. 그 강좌명들을 보면 ‘환경학적 행동과 법적 문화’, ‘흑백의 미국인’, ‘어떻게 우리 자신과 서로를 볼 것인가?’, ‘성역할의 개인 및 사회적 결과’,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법’, ‘인간자원으로서의 언어’, ‘분석가로서의 예술가’ 등이다.

뉴욕시티대학교의 존 제이대학(John Jay College)에서는 ‘특출한 인간: 천재, 창조력, 일탈 행동과 특이성에 관한 연구’라는 심리학, 인류학, 경찰과학, 연극 그리고 문학이 조합된 간학문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⑥ **시대를 초월하는 것에 대한 강조**

1차 세계대전 후 콜럼비아대학에서 시작, 시카고대학에서 발전되어 현재 세인트 존스대학에서 행해지고 있는 시대를 초월한 ‘위대한 책들’

에 대한 교육과정(great books curriculum)이 여기에 속한다.

⑦ **주제별 통합**

중세, 근세 같은 역사적 시대나 서구·이슬람 같은 문명의 종류, 기독교·공산주의 같은 세계관 등 큰 주제 중심으로 간학문적 통합을 꾀하는 것이며, ‘인간과 환경’ 같은 특정 문제의 식으로 여러 학문을 접해보는 것도 이에 속한다.

카네기 재단은 주제의 포괄성과 주제간 체계성을 위해 일곱 가지로 교양교육의 통합 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 주제들은 인문·사회·자연과학 하는 식의 학문영역적 접근이 아니라 국가와 세계, 우주 속의 인간으로서 어떠한 것을 알아야 하는가의 내용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교양교육 본연의 목적에 보다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 하였다.

- 언어 : 결정적 연결고리
- 예술 : 심미적 경험
- 문화유산 : 살아 숨쉬는 과거

- 제 도 : 사회를 엮는 그물
- 자 연 : 지구의 생태학
- 일 : 직업의 가치
- 정 체 성 : 의미있는 것의 탐구

각 주제별로 현 미국 대학에서 개설되고 있는 교양교육 과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언어

코네티컷에는 '사인들과 의사소통' (signs and communication)이란 과목이 있다. 이 과목에서는 언어와 그 언어가 속한 문화적 관련들과의 관계, 상징체계의 기능, 문화간 언어차이 등을 분석하는데 문학, TV, 광고, 컴퓨터, 언어 그 리고 건축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룬다. 브라운대 학에는 '언어와 인간'이라는 강좌가 있다. 이 강좌는 언어의 본질과 인간사에 있어 언어의 기능을 다루는데 언어 이론, 언어의 생물학적 기초, 언어의 역사와 민천, 방언, 그리고 사회적 관점에서의 언어를 포함한다. 이 강좌는 또 어 린이가 어떻게 언어를 습득하는가, 언어의 민중 성 그리고 모든 언어에 공통적인 언어학적 요인 들을 다루고 있다.

나. 예술

노스이스턴대학(Northeastern University)은 '예술과 사회'라는 과목으로 정치적 철학이나 사회적 의지들이 어떻게 그림이나 건축물 등 시 각적 예술에 나타나 있는가를 살핀다. 역사상 몇 개의 획기적인 시대를 개관한 후, 이 과목은 특히 지난 200 년간의 변화를 살핀다. '예술은 1800 년대 이래 무엇을 말하고 있나?'도 웨익 포레스트대학(Wake Forest University)의 인문 계열의 교양과목이다. 역사학 전공의 교수가 가르치는 이 과목은 '자아개념', '신을 잃어버린 느낌', '에머슨과 예술', '예술에 있어 왼손잡 이들의 문제' 등의 강의 주제를 가지고 역사로 서의 예술을 논한다.

다. 문화유산

남메인대학(The University of Southern Maine)에는 '서구문화의 3대 위기 : 법정에 선 문명'이라는 과목이 있다. 소크라테스, 갈릴레오, 카프카에 대한 제판을 주제로 사람들의 세계 관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살핀다. 인디애나 주 에 있는 성 안셀름대학(Saint Anselm College)

은 '인간의 위대성에 대한 초상들'이라는 주제 아래 선택된 역사적 시기에 있었던 도덕적·윤 리적 질의에 중심을 두고 당시 영향력 있는 사람 들의 사명을 다룬 여러 과목을 개설해 놓고 있 다. 1학년의 2개 과목은 기사, 에언자, 철학자, 사제, 정치가, 학자, 전사 및 일반 마을사람의 연구를 통해 '인간의 위대함'을 알아보며 다른 2개의 과목은 미켈란젤로, 마틴 루터, 엘리자 베스 여왕 1세, 세르반테스, 파스칼, 토마스 제 퍼슨, 베토벤, 다윈, 레닌, 간디, 사르트르, 교 황 존 23세 등 위대한 인물들을 공부한다.

라. 제도

시카고대학은 학부과목으로 '미국의 대통령 정부'를 개설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이 과목에서 정부의 행정조직의 배경, 근원 및 변혁과 선택 된 대통령들의 인격, 이상과 지도력, 이들 지도 자들이 어떻게 정책을 펴 나갔는가, 대통령과 국회, 사법부, 여론, 이익집단, 정당 등 그의 정치·제도적 환경과의 관계 등을 공부하게 된 다. 햄프셔대학(Hampshire College)에서는 1 년간 학생 개인 프로젝트로 한 제도나 기관을 선정·연구하고 있다. 한 예로 한 학생은 워싱턴 주 작은 지역사회에서 스키장 건설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결정과정을 환경, 생태 및 사회학 적으로 조사하였다. 스키드모어대학(Skidmore College)에서는 '도시' (the city)라는 과목으로 도시생활의 문제점과 의문점을 공부한다.

마. 자연

하버드대학에서도 고생물 학자인 굴드 교수가 '지구와 생물의 역사' 과목을 개설하여 항성의 역사에 관한 과학적 이론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토론하고 물리학적 측면에서의 지구 역사와 생 물학적 지구생물의 역사를 소개한다. 칼리튼대 학(Carleton College)에는 '현대 과학의 시작' 이라는 강좌로 갈릴레오, 베이컨, 뉴턴 등 16~ 17세기의 수학과 실험 등의 소개로 오늘날 과 학의 형성을 밝힌다. '과학에 있어서의 위대한 생각들'은 미네소타에 있는 성 캐더린대학의 강 좌인테 자연세계의 과학적 원칙들과 구조에 초 점을 두고 있다. 원자 및 핵구조, 통계적 기제 들, 원칙들의 성립 배경, 일반 및 특수 상대성 원리, 방사능, 우주 대폭발 이론 및 우주 형성

론 등이 주된 학습개념들이다. 웰레스리(Wellesley)대학의 '제 3 세계의 기술과 사회'에서는 기술이 개발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다.

바. 일

햄린(Hamline)대학에는 '일터 : 경험과 생각'이라는 과목이 있다. 가을과 봄학기 중간인 겨울 중간학기에는 매일 모여 '일'의 윤리적·심리적 그리고 역사적 측면을 함께 공부하고 토론한다. 봄학기가 되면 실제로 직업을 하나씩 갖고 일하며 실제 일의 경험에서 얻는 생각들을 함께 나눈다. 중앙 코네티컷주립대학(Central Connecticut State University)에서는 '일과 문화'라는 과목을 개설해 놓았다. 도구의 발견 등 인간과 일과의 관계를 공부하고, 농업사회와 산업사회를 비교하여 서로 다른 문화권마다 나이, 성별 그리고 사회계층이 어떻게 직업과 연관이 있는지를 살핀다. 사람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직업을 선택하며, 직업이 개인의 삶과 정신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일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지도 강의 주제의 일부이다.

사. 정체성

프린드대학의 '심리학과 종교' 과목에서는 스키너, 제임스, 융 등 심리학자의 심리분석 방법과 성서 및 루터, 티리히 등 신학자들의 분석으로 정체성(identity)의 문제와 '의미있는 것의 추구'에 대해 강의한다. 버지니아 주의 랜돌프-메이콘(Randolph-Macon)대학에서는 여러 철학자 및 윤리학자 등의 책으로 도덕적인 것은 무엇이며, 도덕은 상대적인지 절대적인지, 권리란 무엇이며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탐구해보는 '윤리'라는 과목이 있다.

5. 우리의 교양교육에 주는 示唆點

지금까지 미국 대학 교양교육과정의 변천, 그 개념 및 구성 그리고 구성요소별 과목들을 기술하였다. 우리의 대학 사회에는 최근 들어 교양교육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본 기획연재도 이러한 의미에서 구안되었으리라 여겨진다.

미국의 교양교육과정의 변천에서 우선적으로 배울 수 있는 점은 교양교육의 改善을 위한 持續的 努力이며 이는 다양한 교양교육과정의 시도로서 나타난다. 교양교육과정의 사명을 끊임 없이 재조명하고 집중, 핵심, 본산, 조사, 도구, 이증, 특별 필수, 주제중심, 간학문적 과목 등 여러 통합 노력과 함께 다양한 교양교육과정 및 과목을 실험하고 발전시키는 모습은 몇 개 도구 과목과 기본과목 일반도인 우리의 교양교육과정을 되돌아 보게 한다. 이 다양성은 또한 계절학기 활용, 1년 과정, 4년 과정, 자기학습과정 등 그 운영상에 있어서도 나타난다.

둘째로 위대한 교육과정의 시도에는 대학의 總長이 主幹한 변혁이 많다는 점이다. 하버드의 엘리엇, 로웰, 코난트 총장, 시카고의 허친스 총장 등 대학의 가장 기본기능인 교육을 나타내는 교육과정 개혁을 주도한 총장들에 비해 우리에게선 건물신축이나 증과·증원에 역점을 두는 총장들이 많은 반면, 교양교육과정의 질 제고와 특성화에 노력하는 총장은 찾기 힘들다.

셋째로 여러 통합교과 개발에 대한 교수 역할과 대학의 지원도 부러울 점이다.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학문과 교양을 하나의 강좌로 발전시키기 위해 미국의 많은 교수들은 교육과정 개발에 힘을 쏟았으며, 대학은 이 개발의 과정과 강좌의 성공적 개설을 지원하였다. 전공 세분화와 학문심화 그리고 교수의 연구기능 강조로 교양교육이 황폐해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교수들, 특히 전공과목이 다른 교수들의 교양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는 풍토와 지원이 아쉽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교양과목에는 '~학', '~론' 등 학문의 냄새를 풍기지 않고도 학생들이 경험해야 할 사실에 직접적 기초를 둔 과목들이 많음을 들고 싶다. '예술과 사회', '신을 잃어버린 느낌', '과학에 있어서의 위대한 생각들' 등의 강좌명들이 생소하게 들릴 정도로 우리 대학의 그릇된 학문지상주의는 우리가 진정으로 배우고 가르쳐야 할 자연과 환경과 인간과 예술 등을 접하는 데 아직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형편이다. ■